

3개 대상경주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유망주들

경마 100주년 '삼관마'는 나야 나

컴플리트벨류, 파죽 5연승 '기세등등' 아스펜태양, 조교사·기수 막강 조합 더블에지·승부사·빅스고도 유력 후보

2022년은 한국 경마 시행 100주년이다. 그래서 '삼관마'에 대한 경마 팬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삼관마, 영어로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은 국산 최강 3세마를 선별하는 1600m부터 2000m까지의 3개 대상경주 시리즈에서 우승한 경주마에게 붙이는 타이틀이다. 지난해 독보적인 기량으로 선보였던 유망주를 중심으로 올해 삼관마 왕좌에 도전할 유력 후보를 예상해 보았다.

●컴플리트벨류(수, R63, 승률 100%, 복승률 100%)

지금까지의 성적만 보면 컴플리트벨류의 삼관마 등극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루키 스테이크스(Rookie Stakes) 특별경주 우승을 시작으로 문화일보배(L), 브리더스컵(GⅡ)까지 5연승으로 무패 행진을 했다. 지난해 주버나일 시리즈 누적승점 1위로 '국산 2세 최우수마'에 올랐다. 담당 박재우 조교사(50조)는 "선주입 모두 가능하고 입이 부드러운 기수와 호흡도 좋아 트리플 크라운을 목표로 4월부터 6월까지 대상경주에 계속 도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스펜태양(수, R50, 승률 75%, 복승률 75%)

유명 씨우마 스톱컷의 후손으로 무엇보다 박대홍 조교사(18조)와 문세영 기수라는 막강한 팀이 뒤에 있다. 가장 최근 경주였던 브리더스컵에서 4위로 주춤했지만 농협중앙회장배(L)까지는 3연승을 기록했던 강자다. 문세영 기수는 "외형이 아주 잘생긴 말로 브리더스컵



지난해 '국산 2세 최우수마'에 오른 등 발군의 실력을 보인 컴플리트벨류(위)와 박대홍 조교사·문세영 기수라는 최고의 조합을 갖춘 아스펜태양. 경마시행 100주년을 맞은 올해 트리플 크라운의 유력 후보로 꼽힌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은 다소 아쉬웠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마인드를 교육하고 장거리에 조금 적응하면 큰 경주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더블에지(수, R47, 승률 25%, 복승률 100%)

지난해 2등만 연이어 하며 아쉬움이

많았던 말이다. 첫 대상경주였던 농협중앙회장배에서 아스펜태양, 승부사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 아스펜태양에 목차로 2위를 했다. 하지만 브리더스컵에서는 아스펜태양을 꺾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더블에지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안해양 조교사(26조)는 "착하고 안정적인 말"이라며 "지난해 대상경주에서 준우

승의 아쉬움이 있지만 올해는 1800m 등 장거리 경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승부사(수, R56, 승률 60%, 복승률 60%)

지난해 컴플리트벨류와 더불어 가장 주목받던 2세마다. 5전3승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루키 스테이크스 특별경주와 농협중앙회장배에서 3위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출발이 좋고 초반부터 선두권에서 경주를 풀어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1200m에서는 주춤했지만 1300m, 1400m에서는 줄곧 1위를 해 장거리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최근 경주였던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7경주에서는 2위와 5마신 차로 승리했다.

●빅스고(수, R35, 승률 33.3%, 복승률 66.7%)

세계랭킹 1위 경주마인 닉스고처럼 한국마사회의 케이닉스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경주마 빅스의 첫 자마다. 미국에서 데뷔한 빅스는 부상으로 조기 은퇴했지만 유전적 분석결과와 닉스고에 버금갈 정도로 높아 교배산업에 투입되어 2018년부터 자마 생산에 나섰다. 그의 아들인 빅스고는 지난해 10월 데뷔해 현재까지 세 번 출전해 1위와 2위를 한 번씩 기록했다.

올해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는 4월 17일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열리는 'KRA컵 마일'(GⅡ, 1600m, 6억 원)을 시작으로 5월 15일 서울의 '코리아더비'(GⅠ, 1800m, 8억 원),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Ⅱ, 2000m, 6억 원)까지 세 경주로 구성됐다. 세 경주 모두 석권하면 통합 삼관마에 오르는데 2016년 '파워블레이드' 이후 통합 삼관마는 아직 탄생하지 않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알면 쓸모 있는 지난 주 경마 이야기

1000승까지 1승 남은 박대홍 조교사



박대홍 조교사

박대홍 조교사는 지난해 11월 998승을 기록한 후 12월에 준우승만 7번을 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2022년 새해를 맞아 드디어 마의 998승에서 벗어났다. 15일 서울 9경주에서 먼로 기수와 함께했던 소울메리트가 우승하며 서울경마공원 첫 1000승 기록까지 1승만 남았다.

주말 경주서 4승 '괴물 신인' 김태희 기수



김태희 기수

김태희 기수는 지난 주말에 4승을 거두며 이혁 기수에 이어 1월 다승 2위에 올랐다. 15일 서울 2경주 골드윈, 4경주 댄스마신, 16일 서울 7경주 머니챌프, 8경주 피케이돌풍과 호흡을 맞춰 승리했다. 특히 주말 경주 모두 선주입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어 강한 인상을 남겼다.



블루치퍼, 1등급들 제치고 신년 첫 승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자존심인 블루치퍼(사지)가 16일 1등급 경주마들이 나선 6경주에서 판타스틱맨, 스마트프린스 등을 제치고 승리했다. 지난해 9월 1800m 경주에서 우승한 이후 'SBS스포츠 스프린트'와 '오너스컵'에서 고전했던 것을 신년 들어 말끔히 털었다. 또한 2000m 첫 우승으로 장거리에 대한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마사회 임직원 '생명나눔, 헌혈운동' 진행

한국마사회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일과 21일 '제1차 생명나눔, 헌혈운동'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 수가 감소한 데다 단체헌혈이 급감하는 겨울철까지 겹쳐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이 헌혈 확보에 힘을 보태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경영진을 비롯해 유도단, 승마단 등 선수단도 헌혈에 참여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4번의 단체 헌혈 행사에서 148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닉스고, 세계 최고 경주마 '론진 어워드' 수상 유력

랭킹 1위 올라 공동 2위에 1점 차 25일 마사회 유튜브서 시상 안내

스위스 시계 브랜드 론진(Longines)과 국제경마연맹(IFHA)이 주최하는 세계 최고경주마 시상식 '론진 어워드'를 앞두고 한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가 유력한 수상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론진 어워드'는 한 해 가장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최고의 경주마와 기수를 발표해 시상한다. 수상마는

론진 경주마 랭킹을 기반으로 선정되는데 세계 주요 대상경주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와 순위가 매겨진다.

닉스고는 현재 론진 경주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1점 차로 아다야(Adayar), 미쉬리프(Mishriff), 세인트 마르크스 바실리카(St Mark's Basilica) 등이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2018년 미국에서 데뷔한 닉스고는 국산 경주마 생산 기반 발전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케이닉스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발굴한 수말이다. 2020년 4세 시즌에는 '브리

더스컵 더트 마일'에서 킨랜드 경마장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다.

지난해에는 1월 세계 최정상급 무대인 '페가수스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고 2월에는 세계 최대 상금이 걸린 '사우디컵'에 초청을 받아 원정 출전해 4위에 올랐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대상경주 3연승을 기록하며 '브리더스컵 클래식' 자동 출전권을 획득했다. 그리고 11월 '브리더스컵 클래식' 경주에서 영광의 우승을 거두었다. 이 우승으로 11월 세계 랭킹에서 국제레이팅 128점으로 1위에 올랐다.

김재범 기자

sports2i 스포츠투아리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NBA (20일)			
●팀순위			
순위	대항지구	승	패
1	브루클린	28	16
2	필라델피아	26	18
3	보스턴	23	23
4	토론토	21	21
5	뉴욕	22	23
●경기결과			
샬럿	111-102	보스턴	117-104
덴버	130-128	LAC	111-104
밀워키	126-114	펠릭스	123-110
샌안토니오	118-96	올라호마	116-111
애틀랜타	134-122	미네소타	133-131
델라웨어	102-98	토론토	119-118
마이애미	104-92	포틀랜드	

해외축구			
프리미어리그 (20일)			
순위	경기수	승점	승
1	맨체스터시티	22	56
2	리버풀	21	45
3	첼시	23	44
4	웨스트햄	22	37
5	토트넘	19	36
6	아스널	20	35
7	맨체스터Utd.	21	35
8	울버햄튼	20	31
9	브라이튼	21	29
10	레스터시티	19	25
11	크리스탈 팰리스	21	24
12	사우스햄튼	21	24
13	애스턴빌라	20	23
14	브렌트포드	22	23
15	리즈	20	22
16	에버턴	19	19
17	왓포드	19	14
18	노리치시티	21	13
19	뉴캐슬	20	12
20	버리	17	11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맨체스터Utd.	3 - 1	브렌트포드	토트넘 3 - 2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셀틱	2 - 0	오사수나	발렌시아 1 - 1

경기예고			
주말 프로농구			
●2021-2022 KGC 정관장 남자프로농구			
21일	현대모비스 (울산동천)	인삼공사	
22일	KCC (전주실내)	삼성	오리온 (고양실내) 가스공사
23일	DB (원주종합)	LG	현대모비스 (울산동천) KT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21일	하나원큐	신한은행	
22일	KB스타즈	삼성생명	
23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말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21일	한국전력	OK금융그룹	
22일	IBK기업은행	인삼공사	
23일	K-스타	V스타	
아마추어 경기예고 (21일)			
배드민턴	●2022 DB그룹 배드민턴 코리아리그(경기 남양주시 화도체육문화센터, 오후1시)		
핸드볼	●제 20회 아시아 남자 선수권대회(사우디아라비아)		
탁구	●제 75회 전국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대회(충북 제천체육관, 오전9시30분)		
오늘의 토토 (21일)			
●농구토도 W매치 18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1.21 (금) 19:00	하나원큐 vs 신한은행	부천실내체육관